

2023년도 국가직 한국사(나책형) 해설

[정답표]

1	2	3	4	5
①	②	③	④	③
6	7	8	9	10
③	③	①, ②	②	②
11	12	13	14	15
③	④	④	②	①
16	17	18	19	20
④	②	①	①	③

*8번: 출제 오류로 복수 정답 처리

1 - 청동기 시대

1. 다음 유물이 사용된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미송리식 토기, 팽이형 토기, 붉은 간 토기

- ① 비파형 동검이 사용되었다.
- ② 오수전 등의 화폐가 사용되었다.
- ③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사용되었다.
- ④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과 왜에 수출되었다.

정답> ①

'미송리식 토기', '팽이형 토기', '붉은 간 토기'가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유물이 사용된 시대는 청동기 시대이다. 참고로 민무늬 토기도 청동기 시대의 토기이지만 '검은 간 토기, 덧띠 토기'는 초기 철기 시대의 유물임에 유의해야 한다.

비파형 동검 역시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 중 하나이다. 초기 철기 시대는 세형 동검(한국식 동검)이 만들어졌다.

오답 해설>

② 오수전(五銖錢)은 중국 한대에 주로 사용된 동전으로, 초기 철기 시대에 해당한다(위진 남북조를 거쳐 수 때까지 유통). 동전의 무게가 오 수, 즉 3.35g인 관계로 오수라는 두 글자가 표시되었다[일수(銖)는 한량(兩)의 1/24].

③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사용된 것은 구석기 시대의 일이다. 경기도 연천 전곡리 유적에서 박편도끼와 함께 발견되었다. 한 미군 병사가 발견하였는데 아슐리안형 주먹도끼의 발견으로 인하여 동아시아 구석기 시대에는 찍개 문화만 존재하고 주먹도끼 문화는 없었다는 모비우스(H. Movius)*의 학설을 뒤집는 증거가 되었다.

*모비우스(Hallam L. Movius, 1907~1987): 미국의 고고학자

④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과 왜에 수출한 것은 초기 철기 시대의 일이다. 초기 국가, 변한[가야]이 그렐하였다(삼한 중 하나).

2 - 고구려 고국천왕

2. 밑줄 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6년 겨울 10월, 왕이 질양(質陽)으로 사냥을 갔다가 길에 앉아 우는 자를 보았다. 왕이 말하기를 "아! 내가 백성의 부모가 되어 백성들이 이 지경에 이르게 하였으니 나의 죄로다." ... (중략) ... 그리고 관리들에게 명하여 매년 봄 3월부터 가을 7월까지 관청의 곡식을 내어 백성들의 식구 수에 따라 차등 있게 빌려주었다가, 10월에 이르러 상환하게 하는 것을 법규로 정하였다.

- 『삼국사기』 -

- ① 낙랑군을 축출하였다.
- ② 「진대법」을 시행하였다.
- ③ 백제의 침입으로 전사하였다.
- ④ 영락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정답> ②

'16년 겨울 10월, 왕이 질양(質陽)으로 사냥을 갔다가 길에 앉아 우는 자를 보았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왕이 말하기를, 아! 내가 백성의 부모가 되어 백성들이 이 지경에 이르게 하였으니 나의 죄로다. ... (중략) ... 그리고 관리들에게 명하여 매년 봄 3월부터 가을 7월까지 관청의 곡식을 내어 백성들의 식구 수에 따라 차등있게 빌려주었다가, 10월에 이르러 상환하게 하는 것을 법규로 정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일종의 빈민 구제책인 고구려의 진대법(賑貸法)을 가리키는 것으로 고국천왕 16년인 194년에 처음 시행되었다[고국천왕(재위 179-197), 제9대](국상 을파소 등용).

오답 해설>

- ① 낙랑군을 축출한 왕은 고구려의 미천왕(재위 300-331, 제15대)이다(313, 미천왕 14). 이듬해인 314년에는 대방군을 정벌하고 영토로 삼았다.
- ③ 백제 근초고왕의 침입으로 전사한 왕은 고구려의 고국원왕(재위 331-371, 제16대)이다(평양성 전투)(371, 고구려 고국원왕 41).
- ④ 영락(永樂)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 왕은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재위 391-413, 제19대)이다.

3 - 전민변정도감

3.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돈이 (가)을/를 설치하자고 요청하자, ... (중략) ... 이제 도감이 설치되었다. ... (중략) ... 명령이 나가자 권세가 중에 전민을 빼앗은 자들이 그 주인에게 많이 돌려주었으며, 전국에서 기뻐하였다.

- 『고려사』 -

- ① 시전의 물가를 감독하는 임무를 담당하였다.
- ② 국가재정의 출납과 회계 업무를 총괄하였다.
- ③ 불법적으로 점유된 토지와 노비를 조사하였다.
- ④ 부족한 녹봉을 보충하고자 관료에게 녹과전을 지급하였다.

정답> ③

'신돈이 (가)을/를 설치하자고 요청하자, ... (중략) ... 이제 도감이 설치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명령이 나가자 권세가 중에 전민을 빼앗은 자들이 그 주인에게 많이 돌려주었으며, 전국에서 기뻐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전민변정도감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여 국가 재정 확보 및 민생 안정을 꾀한 것은 고려 공민왕 15년인 1366년의 것이 대표적이다[청한거사 신돈(?~1371)이 주도]. 권세자에게 점탈된 토지나 농민을 되찾아 바로잡기 위하여 설치된 임시 개혁 기관인 전민변정도감은 사실 그 전에도 역대에 걸쳐 여러 번 설치되었다가 혁파되곤 하였다.*

*전민변정도감: 고려 원종 10년인 1269년, 충렬왕 14년인 1288년, 충렬왕 27년인 1301년, 공민왕 원년인 1352년(권문세족의 반발로 폐지), 공민왕 15년인 1366년, 마지막으로 우왕 7년인 1381년에 각 설치되었다. 전민변정도감을 이처럼 여러 번 설치한 것은 부원파(친원파)를 비롯한 권문세족의 힘을 약화시키고, 더불어 국가 재정 수입의 기반을 확대하고자 한 데 있었다. 하지만 재차 설치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만큼 원 간섭기 이후 권문세족의 권세가 막강하였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전민변정도감은 권세자들에게 불법적으로 점유된 토지와 노비를 조사하여 원상회복시킴으로써 민생을 안정시키고 동시에 국가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개혁 기구였다. 하지만 그만큼 기득권자인 권문세족의 반발이 거세어 도감 자체가 자주 혁파되곤 하였다.

오답 해설>

① 시전의 물가를 감독하는 임무를 담당한 고려의 기구는 경시서이다. 경시서 관리들이 시전의 불법적인 상행위와 물가 등을 감독하였다.

*경시서의 관리들이 수도[개경]의 시전을 감독하기 시작한 것은 고려 목종 대(재위 997-1009, 제7대)로 추정된다(경시서 자체는 그 이전에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 그러다 고려 문종 대(재위 1046-1083, 제11대)에 이르러 경시서의 직제가 확대되었다. 이후 경시서는 조선 초에도 계속 존속되다가 세조 12년(1466)에 관제를 개혁할 때 평시서(平市署)로 개칭되었다.

② 국가 재정의 출납과 회계 업무를 총괄한 고려의 기구는 삼사(三司)이다. 고려 시대의 삼사는 화폐와 곡식의 출납 및 회계를 담당하였다.

④ 부족한 녹봉을 보충하고자 관료에게 녹과전을 지급하기 시작한 것은 고려 원종 12년인 1271년의 일이다. 녹과전은 경기 8현에 한정하여 수조권을 지급한 토지이다.

4 - 서희의 외교 담판

4. 다음과 같이 말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나라가 곧 고구려의 옛 땅이다. 그리고 압록강의 안팎 또한 우리의 지역인데 지금 여진이 그 사이에 몰래 점거하여 저항하고 교활하게 대처하고 있어서 ... (중략) ... 만일 여진을 내쫓고 우리 옛 땅을 되찾아서 성보(城堡)를 쌓고 도로를 통하도록 하면 우리가 어찌 사신을 보내지 않겠는가?

- 「고려사」 -

- ① 목종을 폐위하였다.
- ② 귀주에서 거란군을 물리쳤다.
- ③ 여진을 몰아내고 동북 9성을 쌓았다.
- ④ 소손녕과 담판하여 강동 6주를 획득하였다.

정답> ④

'우리나라가 곧 고구려의 옛 땅이다. 그리고 압록강의 안팎 또한 우리의 지역인데 지금 여진이 그 사이에 몰래 점거하여 저항하고 교활하게 대처하고 있어서'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만일 여진을 내쫓고 우리 옛 땅을 되찾아서 성보(城堡)*를 쌓고 도로를 통하도록 하면 우리가 어찌 사신을 보내지 않겠는가?'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거란의 제1차 침입 시 적장 소손녕(?~996)과 외교 담판을 벌인 문신 서희(942~998)가 소손녕의 말에 대답한 말이다. 즉 소손녕이 고구려의 땅이 거란의 소유인데 고려가 침범해 있고, 또 거란과 영토를 맞대고 있으면서도 바다를 건너 송(宋)을 섬기고 있기에 토벌하러 온 것이라는 말에, 위와 같이 응대하였다. 그 결과 거란을 물러가게 하고 나아가 강동 6주까지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993, 성종 12).

*성보(城堡): 적을 막으려고 성 밖에 임시로 만든 소규모의 요새(要塞)를 가리킨다. 산성(山城)의 한 가지로, 성자(城子)라고도 한다.

오답 해설>

① 목종을 폐위하고 현종을 옹립한 인물은 강조(?~1010)이다[강조의 정변, 1009(고려 목종 12)]. 거란은 이를 구실로 이듬해에 재차 침입하였다(거란의 제2차 침입, 1010년 현종 원년).

② 귀주에서 거란군을 물리친 인물은 강감찬(948~1031)이다[귀주 대첩, 1019(고려 현종 10)](거란의 제3차 침입 시).

③ 여진을 몰아내고 동북 9성을 쌓은 인물은 윤관(1040~1111)이다(1107, 예종 2).

5 - 평양(제너럴 서면호 사건)

5. 밑줄 친 '이곳'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장수왕은 남진정책의 일환으로 수도를 이곳으로 천도하였다.
- 묘청은 이곳으로 수도를 옮길 것을 주장하였다.

- ① 쌍성총관부가 설치되었다.
- ② 망이·망소이가 반란을 일으켰다.
- ③ 제너럴 서면호 사건이 발생하였다.
- ④ 1923년 조선 형평사가 결성되었다.

정답> ③

위의 자료에 '장수왕은 남진 정책의 일환으로 수도를 이곳으로 천도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고려가 평양으로 천도한 것은 장수왕 15년인 427년의 일이다. 아래의 자료에는 '묘청은 이곳으로 수도를 옮길 것을 주장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묘청(?~1135)이 펼친 서경 천도 운동에서 서경은 바로 '평양'을 가리킨다(1135, 고려 인종 13). 묘청은 난을 일으키면서 연호를 천개, 군대를 천견총의군이라 하였다(묘청의 난).

제너럴 서면호 사건이 일어난 곳은 평양이다(1866, 7, 고종 3). 횡포를 일삼은 미국 상선 제너럴 서면호를 평양 관민이 불태워 격침시켰다. 이 사건은 후일 신미양요의 발미가 되었다.

오답 해설>

- ① (몽골에 의해) 쌍성총관부가 설치된 곳은 화주 지역(지금의 함경남도 영흥)이다(1258, 고려 고종 45). 그리고 철령 이북 땅을 관할하고 있던 쌍성총관부가 수복된 것은 공민왕 재위 5년인 1356년의 일이다.
- ② 망이(?~?)·망소이(?~?)가 반란을 일으킨 곳은 공주 명학소이다(1176, 고려 명종 6). 그래서 이를 망이·망소이의 난 또는 공주 명학소의 난이라고 부른다. 공주 명학소는 지금의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일대로 추정된다. 탄방동(炭坊洞)이라는 현재의 지명이 숯방이·숯뱅이, 즉 숯을 굽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망이와 망소이를 비롯한 명학소민이 숯을 생산하는 하층의 신분과 관련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④ 1923년 조선 형평사가 결성된 곳은 경남 진주이다(1923.4).

6 - 매소성 전투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

6. 다음 전투 이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근행이 군사 2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매소성(買肖城)에 머물렀다. 우리 군사가 공격하여 달아나게 하고 전마 30,380필을 얻었는데, 남겨놓은 병장기도 그 정도 되었다.

- 『삼국사기』 -

- ㄱ. 웅진도독부가 설치되었다.
- ㄴ. 김흠돌이 반란을 일으켰다.
- ㄷ. 교육 기관인 국학이 설립되었다.
- ㄹ. 복신과 도침이 부여풍과 함께 백제 부흥 운동을 일으켰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정답> ③

'이근행이 군사 2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매소성(買肖城)에 머물렀다. 우리 군사가 공격하여 달아나게 하고 전마 30,380필을 얻었는데, 남겨놓은 병장기도 그 정도 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신라가 매소성에서 이근행의 당군을 물리친 것은 문무왕 15년인 675년 9월의 일이다(매소성 전투).

- ㄱ. 당이 백제를 멸망시킨 후 웅진도독부를 설치한 것은 660년(태종 무열왕 7) 9월의 일이다.
- ㄴ. 김흠돌(?~681)이 반란을 일으킨 것은 신문왕 원년인 681년 8월의 일이다.
- ㄷ. 교육 기관인 국학(國學)이 설립된 것은 신문왕 2년인 682년 6월의 일이다.
- ㄹ. 복신(?~663)과 도침(?~661)이 (의자왕의 다섯째 왕자인)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하고 백제 부흥 운동을 일으킨 것은 660년(태종 무열왕 7) 10월의 일이다(당시 일본에 있었던 부여풍은 일본에서 5천여 지원군과 함께 이듬해인 661년 9월에 귀국(백제 부흥 운동)).

이상에서 매소성 전투 이후에 일어난 사건은, 'ㄴ과 ㄷ'이다.

7 - 삼국 시대의 주요 사건들

7. 다음 사건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 | |
|----------------|-----------------|
| (가) 신라의 우산국 복속 | (나) 고구려의 서안평 점령 |
| (다) 백제의 대야성 점령 | (라) 신라의 금관가야 병합 |

- ① (가)→(나)→(다)→(라)
- ② (가)→(라)→(나)→(다)
- ③ (나)→(가)→(라)→(다)
- ④ (나)→(다)→(가)→(라)

정답> ③

시기 순으로 바르게 나열된 것을 찾는 문제이다.

(가) 신라가 이사부(?~?)를 파견하여 우산국을 복속 시킨 것은 지증왕 13년인 512년의 일이다.

(나) 고구려가 서안평을 점령한 것은 미천왕 12년인 311년의 일이다. 참고로 3세기 고구려 동천왕(재위 227-248)이 서안평을 공격하였으나(242), 공격에 실패하고 도리어 위(魏)의 장군 관구검의 침략을 받아 수도(환도성)가 함락되는 등 시련을 겪은 사실도 있다(244).

(다) 백제가 신라의 대야성을 점령한 것은 의자왕 2년인 642년의 일이다.

(라) 신라가 금관가야를 병합한 것은 법흥왕 19년인 532년의 일이다.

이상을 시기 순으로 나열하면, '(나)-(가)-(라)-(다)'가 된다.

8 - 고려 시대 문화유산

8. 고려시대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황해도 사리원 성불사 응진전은 다포 양식의 건물이다.
- ② 월정사 팔각 9층 석탑은 원의 석탑을 모방하여 제작하였다.
- ③ 여주 고달사지 승탑은 통일 신라의 팔각원당형 양식을 계승하였다.
- ④ 『직지심체요절』은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이다.

정답> ①, ② (출제 오류로 복수 정답 처리)

'고려 시대 문화유산'에 관한 문제이다.

선지 2의 평창 월정사 팔각 구층 석탑은 원이 아니라 송의 영향을 받은 고려 전기를 대표하는 석탑이다. 원래 정답은 선지 2번이다. 그런데 선지 1에서 황해도 사리원 성불사 응진전은 다포 양식의 건물로 맞는데 '응진전'이 아니라 '응진전'으로 잘못 표기되어 심의 끝에 정답으로 처리하였다(복수 정답, 중복 정답). 사리원 성불사 응진전은 고려 후기의 건축물로 조선 시대 건축에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고려 전기에는 안동 봉정사 극락전,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과 같이 주심포 양식이 유행하였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다포식'이란 기둥 상부 이외의 기둥 사이에도 공포를 배열한 것을 가리킨다. 또 여기서 공포란 전통 목조 건물에서 처마 끝의 하중을 받치기 위해 기둥머리 같은데 짜맞추어 댄 나무 부재이다.

오답 해설>

③ 여주 고달사지 승탑은 통일 신라의 (승탑 양식인) 팔각 원당형 양식을 계승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고려 시대의 승탑으로 구례 연곡사 북부도[구례 연곡사 북승탑],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 (현묘)탑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 특히 후자는 탑신이 사각형으로 된 특수한 형태의 승탑이다.

④ 『직지심체요절』은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다(1377, 고려 우왕 3). 옳은 설명이다.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되었다.

9 - 조선 시대 지도와 천문도

9. 조선시대 지도와 천문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동여지도는 거리를 알 수 있도록 10리마다 눈금을 표시하였다.
- ②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는 중국에서 들어온 곤여만국전도를 참고하였다.
- ③ 천상열차분야지도는 하늘을 여러 구역으로 나누고 별자리를 표시한 그림이다.
- ④ 동국지도는 정상기가 실제 거리 100리를 1척으로 줄인 백리척을 적용하여 제작하였다.

정답> ②

'조선 시대 지도와 천문도'에 관한 문제이다.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는 조선 태종 2년인 1402년에 제작된 세계 지도이다*. 곤여만국전도는 1602년(선조 35)에 이탈리아인 선교사 마테오 리치(1552~1610)가 명의 북경에서 제작한 것을 1708년(숙종 34)에 조선에서 모사한 세계 지도이다.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는 중국(명)으로부터 수입한 두 장의 지도 즉, 이택민의 『성교광피도』와 청준의 『혼일강리도』를 기초로 하고, 최신의 조선 지도와 일본 지도를 결합·편집하여 만들었다. 이 가운데 『성교광피도』에는 중국 이외의 지역이 자세히 그려져 있고, 『혼일강리도』는 중국 역대 왕조의 강역과 도읍이 상세히 수록된 지도이다.

오답 해설>

- ① 고산자 김정호(1804~1866)가 편찬한 대동여지도는 거리를 알 수 있도록 10리마다 눈금을 표시하였다(22첩의 목판본 지도). 옳은 설명이다. 대동여지도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 중이며 12장이 현존한다. 2008년에는 보물 제1581호로 지정되었다.
- ③ 천상열차분야지도는 하늘을 여러 구역으로 나누고 별자리를 표시한 지도이다(1395, 조선 태조 4).
- ④ 동국지도는 정상기(1678~1752)가 실제 거리 100리를 1척으로 줄인 백리척을 적용하여 제작하였다(1740년대). 옳은 설명이다. 백리척이란 100리(약 40km)를 1척으로 줄여서 나타내는 축척 표기법이다.

10 - 대동법

10.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임진왜란 이후에 우의정 유성룡도 역시 미곡을 거두는 것이 편리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일이 성취되지 못하였다. 1608년에 이르러 좌의정 이원익의 건의로 (가)을/를 비로소 시행하여, 민결(民結)에서 미곡을 거두어 서울로 옮기게 하였다.

- 『만기요람』 -

- ① 장시의 확대에 기여하였다.
- ② 지주에게 결작을 부과하였다.
- ③ 공납의 폐단을 막기 위해 실시하였다.
- ④ 공인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필요 물품을 조달하였다.

정답> ②

'임진왜란 이후에 우의정 유성룡도 역시 미곡을 거두는 것이 편리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일이 성취되지 못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1608년에 이르러 좌의정 이원익의 건의로 (가)을/를 비로소 시행하여, 민결(民結)*에서 미곡을 거두어 서울로 옮기게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대동법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1608(광해군 즉위년)~1708(숙종 34)].

지주에게 결작(1결당 쌀 2두)을 부과한 것은 균역법 시행으로 인해 부족해진 세수를 보충하기 위해서였다(1750, 영조 26).

*민결(民結): 백성이 소유한 논밭의 결수(結數), 쉽게 말해 백성의 토지를 가리킨다.

오답 해설>

- ① 대동법의 시행으로 물품 구매와 상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품 화폐 경제, 구체적으로는 장시(場市)가 한층 발전하였다. 즉 대동법의 시행은 전국적인 장시의 확대에 기여하였다.
- ③ 대동법은 공납의 폐단을 막기 위해 실시하였다.
- ④ 대동법의 시행으로 왕실과 관청에서 필요한 수요품을 대신 구해 납품하는 '공인(貢人)'이 등장하였다. 즉 백성들은 자신들의 공납을 대행하는 공인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필요 물품[즉 공물]을 조달하게 하였다.

11 - 흥선 대원군이 추진한 정책

11. (가) 인물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비들 수만 명이 대궐 앞에 모여 만동묘와 서원을 다시 설립할 것을 청하니, (가)이/가 크게 노하여 한성부의 조례(皂隸)와 병졸로 하여금 한강 밖으로 몰아내게 하고 드디어 천여 곳의 서원을 철폐하고 그 토지를 몰수하여 관에 속하게 하였다.

- 『대한계년사』 -

- ① 사창제를 실시하였다.
- ② 『대전회통』을 편찬하였다.
- ③ 비변사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 ④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추진하였다.

정답> ③

'선비들 수만 명이 대궐 앞에 모여 만동묘와 서원을 다시 설립할 것을 청하니, (가)이/가 크게 노하여 한성부의 조례(皂隸)와 병졸로 하여금 한강 밖으로 몰아내게 하고 드디어 천여 곳의 서원을 철폐하고 그 토지를 몰수하여 관에 속하게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당시 집권자인 흥선 대원군(1820~1898)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흥선 대원군에 의해 만동묘가 철폐된 것은 고종 2년인 1865년의 일이고, 전국의 서원 중 47개소를 제외하고 모두 철폐[훼철]한 것은 고종 8년인 1871년의 일이다(600여 곳 철폐, 1864년부터 철폐 시작). 참고로 만동묘는 명의 신종과 의종을 제사 지내기 위해 설립한 사당이다.

*조례(皂隸): 중앙[서울]의 각 관아에서 부리던 하급 군관을 가리킨다. 일종의 경야전(京衙前)으로 경호, 경비, 사령(使令) 등의 잡역에 종사하였다.

흥선 대원군은 비변사를 사실상 폐지하고,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을 부활시켜 각 정치와 군사의 최고 기관으로 삼았다(1865. 고종 2).

오답 해설>

- ① 흥선 대원군은 폐단이 심했던 환곡제를 개혁하여 사창제를 실시하였다(1867, 고종 4).
- ② 흥선 대원군은 『대전회통』, 『육전조례』 등 새로운 법전을 편찬하였다(1865, 고종 2).
- ④ 흥선 대원군은 집권 내내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추진하였다.

12 -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정책

12. 다음과 같은 선포문을 발표하면서 성립한 정부의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중략)…

민국 원년 3월 1일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을 선언한 뒤 …(중략)…

이제 본 정부가 전 국민의 위임을 받아 조직되었으니 전 국민과 더불어 전심(專心)으로 힘을 모아 국토 광복의 대사명을 이룰 것을 선서한다.

- ① 독립 공채를 발행하였다.
- ② 기관지로 『독립신문』을 발간하였다.
- ③ 비밀 행정 조직인 연통부를 설치하였다.
- ④ 재정 확보를 위하여 전환국을 설립하였다.

정답> ④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중략)… 민국 원년 3월 1일 우리 대한 민족이 독립을 선언한 뒤 …(중략)… 이제 본 정부가 전 국민의 위임을 받아 조직되었으니 전 국민과 더불어 전심(專心)으로 힘을 모아 국토 광복의 대사명을 이룰 것을 선서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3·1 운동이 일어난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조직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발표한 임시 헌장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10개 조와 선포문, 정강 등 발표).

재정 확보를 위하여 전환국을 설립한 것은 고종 20년인 1883년의 일이다(1883.7).

오답 해설>

- ①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국외 거주 동포들을 대상으로 독립 공채[애국 공채]를 발행하기 시작한 것은 1919년 11월부터의 일이다.
- ②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기관지로 독립신문을 발간한 것은 1919년 8월의 일이다(1919.8.21~1925.9.25). 독립신문 외 기타 기관지로 『신대한보(新大韓報)』, 『신한청년보(新韓靑年報)』, 『공보(公報)』 등도 간행하여 독립 정신을 홍보하고 소식을 국내외 각지에 알렸다.
- ③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비밀 행정 조직인 연통부를 설치한 것은 1919년 7월의 일이다. 서울에 총판을 두고 각 도·군·면에 독판·군감·면감을 두었는데, 국내에는 9개도 1부 45개군에 조직을 두고 만주에는 3개 총판부가 있었다. 연통제의 임무는 법령 및 공문의 전포, 군인 모집, 시위운동 계획, 애국 성금 각출 등 다양하였다. 하지만 주로 국내 북서 지방에 집중되었다.

13 - 박정희 정부 시기의 사실

13. 밑줄 친 '나'가 집권하여 추진한 사실로 옳은 것은?

나는 우리 국민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질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다각적인 생산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하고, …(중략)… 공산품 수출을 진흥시키는 데 가일층 노력할 것을 요망합니다. 끝으로 나는 오늘 제1회 『수출의 날』 기념식에 즈음하여 …(중략)… 이 뜻깊은 날이 자립경제를 앞당기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을 기원합니다.

- ①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추진하였다.
- ② 3·1 민주 구국 선언을 발표하였다.
- ③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④ 베트남 파병에 필요한 조건을 명시한 브라운 각서를 체결하였다.

정답> ④

'나는 우리 국민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질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다각적인 생산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하고, …(중략)… 공산품 수출을 진흥시키는 데 가일층 노력할 것을 요망합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끝으로 나는 오늘 제1회 『수출의 날』 기념식에 즈음하여 …(중략)… 이 뜻깊은 날이 자립경제를 앞당기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을 기원합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수출의 날은 원래 우리나라가 처음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한 1964년 11월 30일을 기념해 지정한 것이다. 이후 1990년부터 '각종 기념일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무역의 날로 명칭을 바꾸었고 2011년 12월 5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무역 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2012년부터 12월 5일로 다시 날짜를 변경하였다. 따라서 주어진 자료 속 밑줄 친 '나'는 박정희 대통령(1917~1979)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서울 태평로 시민 회관(지금의 서울시 의회)에서 제1회 수출의 날 기념식을 연 것은 1964년 12월 5일이다.

베트남 파병에 필요한 조건을 명시한 브라운 각서가 체결된 것은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66년 3월의 일이다. 박정희 정부는 브라운 각서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국군의 전력 증강과 경제 개발에 필요한 기술 및 차관 제공을 보장받았다.

오답 해설>

- ①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추진한 대표적인 사례는 6월 민주 항쟁 결과 1987년 10월에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제9차 개헌이 이루어진 것을 들 수 있다. 여야 합의에 의해 채택되고 공포된 현행 헌법이기도 하다.
- ② 서울 명동 성당에서 3·1 민주 구국 선언을 발표한 것은 재야인사들이었다(1976.3.1).
- ③ 반민법에 근거하여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줄여서 '반민특위')와 특별 재판부, 특별 검찰부가 구성된 것은 1948년 10월 23일의 일이다(반민특위는 국회 의원 10명으로 구성).

14 - 남인

14. 다음과 같이 상소한 인물이 속한 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상소하여 아뢰기를, “신이 좌참찬 송준길이 올린 차자를 보았는데, 상복(喪服) 절차에 대하여 논한 것이 신과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장자를 위하여 3년을 입는 까닭은 위로 ‘정체(正體)’가 되기 때문이고 또 전중(傳重: 조상의 제사나 가문의 법통을 전함)하기 때문입니다. …(중략)…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이은 ‘정체’이지, 꼭 첫째이기 때문에 참최 3년복을 입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하였다.
- 『현종실록』 -

- ㄱ. 기사환국으로 정권을 장악하였다.
- ㄴ. 인조반정을 주도하여 집권세력이 되었다.
- ㄷ. 정조 시기에 탕평정치의 한 축을 이루었다.
- ㄹ. 이이와 성혼의 문인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정답>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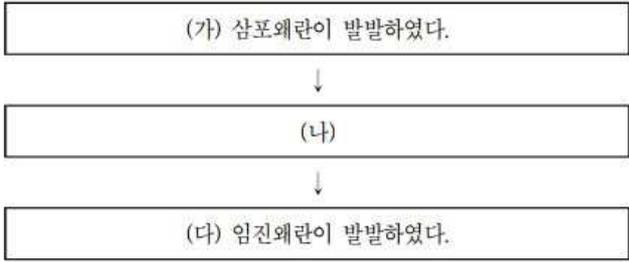
'상소하여 아뢰기를, 신이 좌참찬 송준길이 올린 차자를 보았는데, 상복(喪服) 절차에 대하여 논한 것이 신과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장자를 위하여 3년을 입는 까닭은 위로 정체(正體)가 되기 때문이고 또 전중(傳重: 조상의 제사나 가문의 법통을 전함)하기 때문입니다. …(중략)…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이은 정체이지, 꼭 첫째이기 때문에 참최 3년복을 입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배경지식이 좀 필요한 사료로, 서인 송준길(1606~1672)의 의견에 반대하여 남인인 미수 허목(1595~1682)(당시 장령)이 '참최 3년복[참최설, 3년설]'을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다[1차 예송(기해예송), 1659(현종 즉위년)]. 하지만 1차 예송에서는 결과적으로 서인의 기년설(1년설)이 채택되었다.

ㄱ. 기사환국으로 정권을 장악한 붕당은 남인이다(1689, 숙종 15).

ㄴ. 인조반정을 주도하여 집권 세력이 된 붕당은 서인이다(1623).

15 - 을사사화

15. (나) 시기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 ① 을사사화가 일어났다.
- ② 『경국대전』이 반포되었다.
- ③ 『향약집성방』이 편찬되었다.
- ④ 금속활자인 갑인자가 주조되었다.

정답> ①

(가)에 '삼포왜란이 발발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삼포에서 일본인이 난을 일으킨 것은 조선 중종 5년인 1510년의 일이다(삼포왜란). (다)에는 '임진왜란이 발발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것은 조선 선조 25년인 1592년 4월의 일이다.

을사사화가 일어난 것은 조선 명종 원년인 1545년의 일이다. 명종의 외척인 소윤파에 의해 인조의 외척인 대윤파가 제거되었다.

오답 해설>

- ② 경국대전이 반포된 것은 조선 성종 16년인 1485년의 일이다.
- ③ 향약집성방이 편찬된 것은 조선 세종 15년인 1433년의 일이다. 각종 병론(病論)과 처방을 적은 점, 전통적인 경험에 기초한 점, 조선의 약재를 중시한 점이 특징이다.
- ④ (개량된) 금속 활자인 갑인자가 주조된 것은 조선 세종 16년인 1434년의 일이다.

<14번 문제 해설>

ㄷ. 정조 시기에 탕평 정치의 한 축을 이룬 붕당으로 남인을 들 수 있다(다만 노론이 주도 세력)(준론 탕평).

ㄹ. 이이와 성혼의 문인을 중심으로 형성된 붕당은 서인이다.

이상에서 남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ㄱ과 ㄷ'이다.

16 - 1910년대의 사실

16.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제1조 회사의 설립은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회사가 본령이나 본령에 따라 나오는 명령과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 조선 총독은 사업의 정지, 지점의 폐쇄, 또는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 ① 산미 증식 계획이 폐지되었다.
- ② 「국가 총동원법」이 제정되었다.
- ③ 원료 확보를 위한 남면북양 정책이 추진되었다.
- ④ 보통학교 수업 연한을 4년으로 정한 「조선교육령」이 공포되었다.

정답> ④

제1조로 '회사의 설립은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제5조에는 '회사가 본령이나 본령에 따라 나오는 명령과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 조선 총독은 사업의 정지, 지점의 폐쇄, 또는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회사 설립 시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회사령이 공포된 것은 1910년 12월의 일이다. 이것은 이른바 '허가제 회사령'이며, 1920년 4월에 이르러서는 '신고제[계출제] 회사령'으로 바뀌었다(역으로 일본 자본과 회사의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

보통학교 수업 연한을 4년으로 정한 조선 교육령이 공포된 것은 1911년 8월의 일이다(제1차 조선 교육령). 참고로 (3·1 운동의 영향으로) 개정된 제2차 조선 교육령에서는 일제 본국과 동일하게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을 6년으로 늘렸다(1922.2).

오답 해설>

- ① 산미 증식 계획이 폐지된 것은 1934년의 일이다(1920~1934).
- ② 국가 총동원법이 제정된 것은 1938년 4월의 일이다.
- ③ (공업) 원료 확보를 위한 남면북양 정책이 추진된 것은 1932년부터의 일이다(1932.9). 한반도의 남쪽에는 목화를 재배하도록 하고, 북쪽에는 양 사육을 강요한 것으로, 일제의 공업 원료 증산[수탈] 정책이다(일제 패망시까지 시행).

17 - 5·10 총선거

17. 다음과 같은 결의문에 근거하여 시행된 조치로 옳은 것은?

소총회는 …(중략)… 한국 인민의 대표가 국회를 구성하여 중앙정부를 수립할 수 있도록 선거를 시행함이 긴요하다고 여기며, 총회의 의결에 따라 국제연합 한국 임시위원단이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 결의문 제2호에 기술된 계획을 시행함이 동 위원단에 부과된 임무임을 결의한다.

- ① 미 군정청이 설치되었다.
- ② 5·10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 ③ 좌우 합작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 ④ 미·소 공동 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정답> ②

'소총회는 …(중략)… 한국 인민의 대표가 국회를 구성하여 중앙 정부를 수립할 수 있도록 선거를 시행함이 긴요하다고 여기며, 총회의 의결에 따라 국제연합 한국 임시 위원단이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 결의문 제2호에 기술된 계획을 시행함이 동 위원단에 부과된 임무임을 결의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UNTCOK)의 보고를 받고 열린 유엔 소총회에서 유엔 감시하의 총선거로 정부를 수립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것은 1948년 2월의 일이다(1948.2.26)(유엔 소총회 의결).

유엔 소총회의 의결에 따라 같은 해인 1948년 5월 10일에 5·10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오답 해설>

- ① 미 군정청이 설치[공식 출범]된 것은 1945년 9월의 일이다(1945.9.20).
- ③ (미군정의 지원으로) 좌우 합작 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1946년 7월의 일이다(1946.7.25). 동 위원회에 의해 좌우 합작 7원칙이 발표된 것은 같은 해 10월 7일이다.
- ④ 미소 공동 위원회가 처음으로 개최된 것은 1946년 3월의 일이다(제1차). 이듬해인 1947년 5월에도 제2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개최되었다. 두 차례의 미소 공동 위원회는 모두 미·소 양측의 의견 차이(협의 대상 선정 문제)로 최종 결렬되고 말았다(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 1946.3.20-5.9/제2차 미소 공동 위원회, 1947.5.21-9.17).

18 - 강화도 조약과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

정 사이의 사실

18. (가), (나) 조약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제10관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 지정의 각 항구에 머무는 동안에 죄를 범한 것이 조선국 인민에 관계되는 사건일 때에는 일본국 관원이 재판한다.

(나) 제4관 중국 상인이 조선의 양화진 및 한성에 영업소를 개설할 경우를 제외하고, 각종 화물을 내륙으로 운반하여 상점을 차리고 파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단, 내륙행상이 필요한 경우 지방관의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 ① 개항장에서는 일본 화폐가 통용되었다.
- ② 러시아가 압록강 유역의 산림 채벌권을 획득하였다.
- ③ 황국 중앙 총상회가 조직되어 상권 수호 운동을 전개하였다.
- ④ 함경도의 방곡령에 불복하여 일본 상인이 손해 배상을 요구하였다.

정답> ①

(가)의 제10관에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 지정의 각 항구에 머무는 동안에 죄를 범한 것이 조선국 인민에 관계되는 사건일 때에는 일본국 관원이 재판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고종 13년인 1876년 2월에 조선과 일본이 체결한 조일 수호 조규, 즉 강화도 조약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나)의 제4관에는 '중국 상인이 조선의 양화진 및 한성에 영업소를 개설할 경우를 제외하고, 각종 화물을 내륙으로 운반하여 상점을 차리고 파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단, 내륙 행상이 필요한 경우에 지방관의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임오군란 결과 고종 19년인 1882년 8월 조선과 청이 체결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조일 수호 조규에 이어 추가로 체결한 조일 수호 조규 부록에 의해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제8조)(1876.8).

오답 해설>

- ② 러시아가 (두만강과) 압록강 유역의 산림 채벌권을 획득한 것은 고종 33년인 1896년의 일이다(울릉도도 포함).
- ③ 황국 중앙 총상회가 조직되어 상권 수호 운동을 전개한 것은 고종 35년(광무 3)인 1898년 7월의 일이다.
- ④ 함경도의 방곡령에 불복하여 일본 상인이 손해 배상을 요구한 것은 고종 26년인 1889년 10월의 일이다. 방곡령 시행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한다는 합의가 실려 있는 조약은 조일 통상 장정이다(1883.7).

19 - 흥범 14조

19. 밑줄 친 '14개 조목'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제부터는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않으며 융성하도록 나라의 발걸음을 넓히고 백성의 복리를 증진하여 자주독립의 터전을 공고하게 할 것입니다. ... (중략) ... 이에 저 소자는 14개 조목의 흥범(洪範)을 하늘에 계신 우리 조종의 신령 앞에 맹세하노니, 우러러 조종이 남긴 업적을 잘 이어서 감히 어기지 않을 것입니다.

- ㄱ. 탁지아문에서 조세 부과
- ㄴ. 왕실과 국정 사무의 분리
- ㄷ. 지계 발급을 위한 지계아문 설치
- ㄹ. 대한 천일 은행 등 금융기관 설립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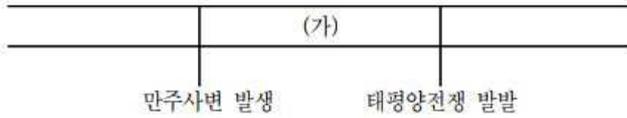
정답> ①

'이제부터는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않으며 융성하도록 나라의 발걸음을 넓히고 백성의 복리를 증진시켜 자주독립의 터전을 공고하게 할 것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에 저 소자는 14개 조목의 흥범(洪範)을 하늘에 계신 우리 조종의 신령 앞에 맹세하노니, 우러러 조종이 남긴 업적을 잘 이어서 감히 어기지 않을 것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밑줄 친 '14개 조목'은 조선 고종 32년인 1895년 1월에 발표된 '흥범 14조'를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1895.1.7). 흥범 14조는 제2차 갑오개혁을 이끈 기본 강령이다(1894.12~1895.8).

- ㄱ. 탁지아문에서 조세 부과는 제7조에 해당한다('조세 부과와 징수 및 경비 지출은 모두 탁지아문에서 관장한다').
 - ㄴ. 왕실과 국정 사무의 분리는 제4조에 해당한다('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분리하여 서로 혼동하지 않는다').
 - ㄷ. 광무개혁의 일환으로 지계아문을 설치하여 양전 사업을 실시하고 근대적 토지 소유권인 지계를 발급한 것은 1899년에서 1903년의 일이다. 양전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양지아문을 설치한 것이 1898년, 뒤이어 지계아문을 설치한 것이 1901년의 일이다.
 - ㄹ. 대한천일은행은 고종 36년이자 광무 3년인 1899년 1월에 설립되었다. 민족계 은행으로 설립 시 고종 황제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다. 국권 피탈 후인 1912년에 조선 상업은행으로 개칭되었다.
- 이상에서 '(흥범) 14개 조목'에 해당하는 것은, 'ㄱ과 ㄴ'이다

20 - 만주 사변과 태평양 전쟁 사이의 모습

20. (가) 시기에 볼 수 있었던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학교에 등교하는 조선인 학생
- ② 황국 신민 서사를 암송하는 청년
- ③ 『제국신문』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
- ④ 쌍성보에서 항전하는 한국독립당 군인

정답> ③

만주 사변이 발생한 때와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때 사이의 시기가 '(가)'로 제시되어 있다. 일본 관동군에 의해 만주 사변이 발생한 것은 1931년 9월의 일이다(1931.9.18). 그리고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것은 1941년 12월의 일이다(1941.12.8).

제국신문이 창간된 것은 1898년 8월의 일이다. 1910년 8월 한·일 병탄을 목전에 두고 폐간되었다.

오답 해설>

① 초등 교육 기관의 명칭이 보통학교에서 소학교로 다시 변경된 것은 제3차 조선 교육령 때인 1938년 3월의 일이다(1895년에 소학교, 1906년에 보통학교). 참고로 소학교가 다시 국민학교로 명칭이 변경된 것은 1941년 3월의 일이다(제3차 조선 교육령 일부 개정).

② 일본에 충성하자는 황국 신민 서사를 만들어 암송하게 한 것은 중일 전쟁 발발 직후인 1937년 10월부터이다.

④ 쌍성보 전투가 벌어진 것은 1932년 9월과 11월의 일이다. 쌍성보 전투는 한국 독립당 소속의 한국 독립군(지청천 총사령)이 중국 호로군과 연합하여 일·만주군과 벌인 전투이다. 쌍성보는 흑룡강성 하얼빈 서남방에 위치한다.

- 이 상 -